

제주도 전통 산육속(産育俗)의 전승

Heritage of Traditional Childbirth and Childcare on Jeju

이 경 화*

Lee, Kyeong Hwa

안 미 선**

Ahn, Mi Seon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hildbirth and childcare custom on Jeju were studied by interviews of 134 elder women over 60. This established the nature of traditional custom of prenatal care, delivery, child rearing, and traditional ceremonies for baby as well as popular beliefs. The survey of current childbirth and childcare practices included 168 parents of kindergarteners.

Results showed that traditional childbirth and childcare custom of Jeju is based on self-reliance, effectiveness, labor, and popular beliefs and that the heritage consisting of traditional postpartum foods, bathing of the newborn baby, use of a cradle, shamanistic prescriptions, and acupuncture is prevalent today.

Key Words : 제주(Jeju), 전통 산속(traditional custom of childbirth), 전통 육아속(traditional custom of childcare), 민간신앙(popular beliefs)

※ 접수 2003년 10월 31일, 채택 2003년 12월 2일

* 탐라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E-mail : khlee@tju.ac.kr

** 제주도 연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I. 문제 제기

문화는 인간과 환경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믿음, 언어, 기술, 사회적 구조, 관습이다(Williams, 1961). 아이를 낳고 기르는 방식은 이러한 문화의 산물이자 또한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사회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형성자이기도 하다. 즉 한 사회의 산육속(産育俗)¹⁾은 그 사회의 역사와 자연환경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해 온 주체에 의해서 독특하게 형성되며, 세대를 지나 전승해가면서 주체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 산육속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오늘날 그 전승실태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 나라의 산육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사회의 산육속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 교육사 등의 분야에서 해당 학문의 관심과 필요에 의해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의 경우, 국가간 비교나 통과의례적 의미 고찰을 목적으로 문헌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전통사회의 실제 생활에서 수집·발굴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조사자료는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강득희, 1983; 김승찬, 1993; 김종숙, 1989; 오선영, 2001; 윤여송, 1987; 이경복, 1979; 한양명, 1999; 홍순례, 1992, 1999).

아동학 분야에서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1,994명의 노인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체계화한

유안진(1990)의 연구 이후, 전통 산육속 관련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강지영, 1994; 류점숙, 1987; 신양재, 1994, 1995; 오미경, 1991; 우영희, 1989; 하수연, 1999), 이들 또한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점과 한반도 이외의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의 육아 문화 혹은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미흡하거나 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한반도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민속학의 제반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통적인 산후관리에 관한 연구들(강문정, 1988; 고부자, 1976; 문재희, 1987)과 관련 습속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문헌(제주도, 1993; 제주도교육청, 1996)이 있을 뿐, 전통적인 자녀출산 및 양육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통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해방 이전에 출생하고(유안진, 1990) 그러한 육아문화를 체험한 세대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이들로부터 태교실천, 출산 전후의 습속, 신생아 관리, 수유 및 이유, 배변훈련, 애기구덕의 이용 등에 대한 양아(養兒)와 출생 후의 아기 행사들, 주술적 처방 및 침 맞히기와 같은 민간신앙적 습속 등 전통 산육속을 발굴하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한편, 전통이란 것이 과거에만 속해 있고 현재와는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전통문화의 요소가 이어져 옴으로써 현재의 삶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인식할 때(Patrick, 1992), 현대 사회에서 전통 산육속이 어떻게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또 상황에

1) 본 연구에서 전통 산육속(産育俗)이라 함은 전통 사회(8.15 광복이전까지로 규정)에서 민간에 의해 행해진 출산전후의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관리 습속(習俗)과 출생부터 만 2세 전후까지 영아의 육아 습속을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 재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전통적인 산육속을 조사하고, 현대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전통 산육속의 전승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 전승 실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의미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산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전통 산육문화 연구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제주도의 전통 산육(産俗)(태고, 출산)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전승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제주도 전통 육아속(育兒俗)(양아, 아기행사, 민간신앙적 습속)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전승 실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무선표집하여 개별 면접을 통해 전통적인 산육 관련 습속들을 조사하고, 군락표집법을 통해 추출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통 산육속의 전승 실태를 조사하였다.

면접조사의 표집 대상은 해방 이전 제주도에 서 출생하여 영유아기를 보냈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할머니 134명으로,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4.5명(남아 2.2명, 여아 2.3명)이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한 자녀 이상의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으며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168명이었다. 면접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의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현황

구 분	면접대상 할머니		설문조사대상 어머니		
	N	%	N	%	
거 주 지 역	제주시	38	28.4	28	16.7
	서귀포시	55	41.0	76	45.2
	북제주군	17	12.7	47	28.0
	남제주군	24	17.9	17	10.1
	60-65세 / 27-30세	62	46.3	38	22.6
연 령	66-70세 / 31-35세	31	23.1	49	29.2
	71-75세 / 36-40세	26	19.4	39	23.2
	76세 이상 / 41-43세	15	11.2	38	22.6
	무응답	0	0.0	4	2.4
	무학	50	37.3	0	0.0
학 력	초등학교 졸업	60	44.8	3	1.8
	중학교 졸업	16	11.9	3	1.8
	고등학교 졸업	8	6.0	98	58.3
	2년제대 졸업	0	0.0	40	23.8
	4년제대 졸업	0	0.0	21	12.5
	대학원 졸업	0	0.0	2	1.2
무응답	0	0.0	1	0.6	
계	134	100.0	168	100.0	

2. 연구절차 및 도구

노인 대상 면접은 수집하고자 하는 5개 영역의 산육속(태교실천, 출산, 양아, 아기행사, 민간신앙적 습속)에 대해 준표준화 개별 면접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로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면접자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14명(평균 연령 35.92세, 평균 교직경력 13.78년)이었으며, 연구의 목적 및 취지, 면접내용과 면접 및 기록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면접에 임하였다.

〈표 2〉 면접 및 설문지 구성

구분	영역	면접 및 설문 내용	설문항수
산 속	태교 실천	· 태교의 필요성 및 실천유무 · 임부의 권장사항 · 임부의 금기사항	11
	출산	· 출산 방법(자세, 장소, 조력자) · 출산후 관리(산후식, 태반 및 탯줄처리) · 신생아 관리	
육 아 속	양아	· 수유 및 이유 방법 · 배변 훈련 방법 · 애기구덕의 제작 및 활용	27
	아기 행사	· 아기행사의 종류 · 행사 방법	
	민간신앙적 습속	· 주술적 처방 · 침 맞히기의 이유와 효과	
계			38

부모 대상 설문지는 노인 면접에서 사용한 면접지 및 응답 결과에 기초하여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예비 설문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약 3주간(2003년 3월 24일- 4월 12일)에 걸쳐 제주도내 유치원 학부모 250명에게 직접 혹은 우편으로 직접 배부하였다. 이들 중 187부(74.8%)가 회수되었는데, 일부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168부(67.%)이다. 노인면접 및 부모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3. 자료분석

노인 면접 자료는 면접 과정에서 기록하거나 녹취 후 전사하였으며, 통계처리를 위하여 원 자료에 나타난 유사한 응답들은 묶어서 약호화하였다. 약호화된 자료는 빈도 및 백분율과 같은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태교실천, 출산, 양아, 아기행사, 민간신앙적 습속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사례를 추출하여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한글 SPSS Windows용 10.0이다.

Ⅲ. 연구결과

노인면접 및 부모설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제주 전통 산속과 육아속으로 크게 나누어 그 특성과 전승 실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 전통 산속과 전승 실태

1) 제주 전통 산속의 특성

산속(産俗)이라 함은 출산전후의 태아 및 산모관리를 통칭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

은 인격체로서 태아를 인식하면서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 태교를 중요시 여겨왔다. 이러한 내용은 「동의보감(東醫寶鑑)」, 「사소절(士小節)」, 「규합총서(閩閩叢書)」, 「태교신기(胎教新記)」 등의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수태 전후의 섭취 음식과 태도, 언행 등에 대한 권장 및 금기사항들에 대한 구전 태교에 의해서도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하수연, 1999). 출산과정은 산모와 신생아의 총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문화권내에서의 독특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며, 문화적 배경에 따라 건강행동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강문정, 1988).

노인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전통사회의 태교내용 및 실천과 출산속속, 즉 출산시 조력자, 출산자세 및 장소, 태줄과 태반의 처리, 산모의 산후음식에 관한 속속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산부의 권장사항이나 금기사항은 ‘고운 것 보기’, ‘좋은 말, 바른 행동하기’, ‘긋은 일이나 나쁜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기’, ‘싸우거나 나쁜 이야기하지 않기’ 등 한반도 중심의 전통사회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교를 직접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피면접자들은 “먹고살기에 바빠 태교가 뭐신디 잘 몰랐쨌”(남-9)²⁾, “일하느라 정신 없었으면. 신경 써서 태교나 그런 거 못했쨌”(남-14), “생활이 어려운데 태교를 어떻하멘”(북-22) 등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태교 실천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척박한 토양을 지니고 있는 궁핍한 환경, 그로 인한 노동중심의 생활문화가 지배적이었다는 데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제주 전통사회의 빈

곤한 삶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근면성을 강요하였고, 임신부라 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제주 전통사회의 대부분 여성들은 자력으로 분만하였으며, 남편의 조력도 중요하였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임부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혹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가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길에서 출산해서 낳은 아이를 <길둥이>나 <질둥이>로, 물질도구인 축항에서 분만했다고 하여 <축항둥이>란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제주도교육청, 1996).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 대다수가 밭에서 일하다가 진통이 심하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방안에 보릿짚이나 벼짚을 깔고 그 위에서 힘을 쓰며 낳았다고 보고하였다. 한반도의 출산과는 달리 조력자의 힘을 빌려 출산하기보다 자력으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독립적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첫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있으며, 그 다음에 아이 낳을 때도 남편이 지켜주어야 하멘”(서-5), “어명이 아이 낳을 때 아방이 고기잡이에 나가서는 안 되게”(남-9) 등의 출산시 남편의 조력과 관련된 속신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을 부부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는 진취성도 지니고 있었다.

셋째, 출산자세에 있어서는 분만시간이 가까우면 보릿짚을 방안에 깔고 바구니나 구덕에 옷따위를 가득 담고 베개를 얹혀놓았다고 하는데, 이는 이것을 꼭 붙들고 엮드려서 힘을 내기에 편한 자세를 취하였다(고부자, 1976).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의 반응에서도 “앉아서 낳았쨌”(북-17) 또는 “구덕을 안고 엮드려서 낳았어”(남-23)와 같은 반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2) 본 연구의 노인 면접에 참여한 피면접자의 응답을 피면접자의 혼인전 거주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기한 형태이다.

볼 때, 주로 누운 자세에서 분만이 이루어졌던 한반도와는 다른 독특한 출산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출산시 태아의 진행경로와 중력의 방향에 따른 분만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 전통사회의 이러한 출산 자세는 일찍이 과학성을 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출산후의 태줄 및 태반의 처리는 지역에 따라 불태우거나, 바다에 던지거나, 땅에 묻는 형태를 취하였다. 태아는 모체 내에서 영양분의 보급을 받고 있다가 출산하게 되면 모체와 연결하고 있는 태줄을 자르게 되는데, 이를 '삼 가르다' 혹은 '태 가르다'라고 하여(오선영, 1999) 전통사회에서는 영아 사망의 원인이 삼칠일을 전후로 배꼽으로 병균이 침입하여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태줄 처리를 중요시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산모의 모체에서 태아가 떨어지면 태줄을 자르는데 이를 '배똥 줄 자른다'고 하며 이 태줄을 '명줄'이라고도 불렀다(고부자, 1976). 면점에 참여한 노인들의 반응을 요약해 보면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태반 및 태줄 처리방법은 세 가지로, 불태우거나, 땅속에 묻는 경우, 바닷물에 던지는 방법이 그것이다. 불에 태우는 경우는 주로 농촌 부락에서 행해졌고, 바닷물에 던지는 경우는 어촌부락에서 그리고 땅속에 묻는 경우는 가장 정성이 많은 처리방법으로서 산간, 농촌지역에서 많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몇 가지 속신(俗信)이 전해지고 있는데, "집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처리할 경우엔 터울이 늦어져"(북-1)라던가, "아이 낳고 사흘째 그릇에 넣어서 몰래 바당(바다)에 던지는데 뚜껑이 안 맞아서 틈이 있으면 아이한테 부스럼이 남잖"(남-23), "불에다 태울 때 미끈한 나무로 태워야지 안 그러면 아기피부가 얇어버려"(북-29) 등이다. 그 외 태반을 태우고 남은 재가 딱딱하면 장수

할 아기가 하고, 단지를 묻은 장소에서 벌레가 일거나 물이 고이면 아기의 머리카나 피부에 피부염 및 종기가 생기므로 옮겨서 묻어야 한다는 것 등도 속신으로 전해지고 있다(제주도, 1993).

다섯째, 출산후 산모의 산후식으로는 메밀이 주재료로 이용된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초삼일이 되면서부터 산모의 수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족이나 붕어 등을 고아 먹으며 삼신 등에게 축원하고 산모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과 행위 행위금기를 지켰다(한양명, 1999). 제주도의 경우, 분만 중인 산모에게 참기름에 달걀을 타서 먹이면서 순산을 기원하였고, 분만 직후에는 메밀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강문정, 1988; 고부자, 1976; 제주도, 1993). 메밀가루를 물에 타서 그대로 마시든지, 혹은 끓는 물에 한번 익혀서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메밀가루를 먹어야 지혈이 되고 피가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하여 제주 여성들은 출산직후 처음 먹게 되는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겨져 왔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의 반응에서도 산후에 '특별히 따로 먹은 것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메밀수제비, 미역국, 돼지족 등을 산후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메밀수제비가 제주도 산모들에게는 주요한 산후조리 음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메밀은 한방에서는 교맥(蕎麥)이라 하여 오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생의 에너지인 기를 보익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메밀가루 수제비는 기를 북돋아주고 산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지방과 달리 산모들이 메밀가루를 많이 먹게 된 데에는 제주도의 풍토적 조건상 밭농사를 주로 하면서 조나 피, 메밀, 두류 등의 재배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제주 전통 산육의 전승 실태

제주도 전통 산육의 전승 실태를 태교실천과 출산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태교실천

태교에 대해 노인들의 85.1%(114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대 부모들의 경우에도 97.0%(163명)가 필요하다고 반응함으로써 예전이나 지금이나 태교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노인들의 경우 8.2%(11명)만이 태교를 실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비해 현대 부모들은 81.0%(136명)가 실천했다고 응답함으로써 태교 실천의 적극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부로서 권장되거나 금기시 되었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태교를 실천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다중응답을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임부의 권장 사항으로는 ‘고운 것(건강한 아이 사진) 보기’(6명, 37.5%), ‘좋은 말, 바른 행동하기’(5명, 31.2%), ‘기도, 노래 들려주기’(2명, 12.5%) 등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에도 거의 전승되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름이나 초하루에 할망당 가기’와 같은 주술적, 심리치방적 내용은 1.2%(4명)의 응답자만이 실천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거의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들의 금기 사항으로는 ‘불이 난 곳, 무서운 곳 가지 않기’(14명, 15.3%), ‘긫은 일이나 나쁜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기’(11명, 12.1%), ‘싸우거나 나쁜 이야기하지 않기’(11명, 12.1%), ‘도둑질, 살생하지 않기’(11명, 12.1%), ‘무거운 것 들지 않기’(11명, 12.1%) 등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 부모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표 3> 태교실천

내 용	전통(N=11)		현대(N=136)	
	응답수	%	응답수	%
고운 것(건강한 아이 사진 등)보기	5	31.2	53	16.3
권 좋은 말, 바른 행동하기	6	37.5	136	41.9
장 기도, 노래 들려주기	2	12.5	97	29.8
사 보름이나 초하루에 할망당 가기	2	12.5	4	1.2
항 깨끗한 곳에서 소변보기	1	6.3	35	0.8
계	16	100.0	325	100.0
불이 난 곳, 무서운 곳 가지 않기	14	15.3	90	9.1
긫은 일이나 나쁜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기	11	12.1	21	2.1
싸우거나 나쁜 이야기하지 않기	11	12.1	133	13.5
소나 말 줄 밟지 않기	5	5.5	12	1.2
놀라지 않기	1	1.1	121	12.3
금 더러운 곳에 앉지 말기	7	7.7	68	6.9
기 신랑, 신부 처음으로 보지 말기	1	1.1	1	0.1
사 서두르지 않기	4	4.4	14	1.4
항 도둑질, 살생하지 않기	11	12.1	71	7.2
구석으로 가거나, 구석에 앉지 않기	1	1.1	46	4.7
문턱 넘지 않기	2	2.2	46	4.7
술, 담배, 야간 외출을 하지 않기	4	4.4	122	12.4
무거운 것 들지 않기	11	12.1	106	10.8
몸을 차갑게 하지 않기	3	3.3	125	12.7
약 먹지 않기	5	5.5	9	0.9
계	91	100.0	985	100.0

금기사항이 거의 전해오고 있었다. 단, ‘신랑, 신부를 처음으로 보지 말기’(1명, 0.1%)나 ‘약 먹지 않기’(9명, 0.9%), ‘소나 말 줄 밟지 않기’(12명, 1.2%) 등은 거의 금기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임부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들은 전해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주술적인 내용이나 사회변화에 따라 인식이 변화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출산과정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출산과정의 전통적인 습속은 오늘날 거의 전승되어 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장소의 경우, 노인 면접결과에서는 대다수(125명, 93.3%)가 밖에서 일하

다가 진통이 심하면 집으로 돌아와 방안에 보릿짚이나 벼짚을 깔고 그 위에서 낳았다고 응답한 한편, 부모설문 결과에서는 대다수(163명, 97.0%)가 병원에서 낳았다고 응답함으로써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출산 장소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시 노인들의 경우 자력(67명, 50%)으로 혹은 친정어머니(16명, 23.9%), 산파(15명, 22.4%), 시어머니(13명, 19.4%), 동네사람(13명, 19.4%), 친척(6명, 9.0%), 남편(4명, 5.9%)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한데 비해, 부모설문 조사에서는 대다수 의사나 산파(168명, 100%)가 분만을 도운 것으로 나타나 출산시 조력자에 관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출산자세에 있어서도 노인면접 결과 ‘앉아서’(61명, 45.5%) 또는 ‘구덕을 안고 엎대어서’(31명, 23.1%) 아이를 낳았다는 반응이 전체 68.7%를 차지함으로써, ‘누워서’ 낳았다고 반응한 피면접자들(42명, 31.4%)보다 비율이 높았던 한편, 부모설문 조사결과에서는 병원에서 대부분 출산을 하면서 125명(79.6%)이 누운 자세로 아이를 낳았다는 반응이 앉은 자세(4명, 2.4%)나 엎드린 자세로 낳았다(2명, 1.3%)는 반응보다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출산후 태반의 처리방법에 대해 노인들은 ‘불에 태우거나’(48명, 38.7%), ‘땅속에 묻거나’(43명, 34.7%), ‘바다에 던지는’(33명, 26.6%) 등으로 응답한데 비해, 현대 부모들의 거의 대부분(160명, 95.2%)이 병원에서 처리하였다고 응답하여 병원분만으로 인해 태반 처리방식은 거의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태줄의 처리에 관한 노인 및 현대 부모의 반응을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현대 부모들의 태줄의 처리 방법은 ‘따로 보관해 두거나’(60명, 36.1%), ‘땅

<표 4> 태줄 처리방법

내 용	전통(N=124)		현대(N=160)	
	응답수	%	응답수	%
바다에 던짐	17	16.7	41	24.8
땅에 묻음	25	24.5	43	25.9
불에 태움	33	32.3	13	7.8
따로 보관해 둠	16	15.7	60	36.1
종이에 싸서 버림	11	10.8	9	5.4
계	102	100.0	166	100.0

속에 묻거나’(43명, 25.9%)와 ‘바다에 던지는’(41명, 24.87%) 등으로 보고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주술적 의미에서 태반과 태줄의 처리를 매우 중요시하였으나, 현대 부모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함으로써 처리과정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습속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출산 후 먹은 음식에 대해서는 전통사회 산모들의 경우에는 궁핍한 경제생활로 인해 ‘특별히 고려한 것이 없었다’(53명, 39.6%)고 응답한데 비해, 현대 산모들은 대다수(155명, 92.3%)가 특별히 산후식을 챙겨먹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차이를 보였다. ‘출산 후에 특별히 먹은 음식이 있었다’고 응답한 노인과 부모의 다중응답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산후식

내 용	전통(N=81)		현대(N=155)	
	응답수	%	응답수	%
메밀수제비	61	55.0	112	27.5
미역국	40	36.0	154	37.8
한약	2	1.8	92	22.6
돼지 족	4	3.6	30	7.4
된장국	2	1.8	17	4.2
막걸리를 데워서 돼지기름을 타서 먹음	2	1.8	2	0.5
계	111	100.0	407	100.0

<표 4>에 의하면 노인 면접결과 메밀수제비(61명, 55.0%), 미역국(40명, 36.0%), 돼지족(4명, 3.6%) 등을 산후식으로 섭취하였다고 나타났으며, 현대 많은 부모들이 미역국(154명, 37.8%)이나 메밀수제비(112명, 27.5%)를 산후 음식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산후 음식으로 메밀수제비를 먹는 것은 제주도 전통적인 습속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주 전통 육아속과 전승 실태

1) 제주 전통 육아속의 특성

제주도 전통 육아속(育兒俗)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신생아 관리, 수유 및 이유, 배변훈련, 애기구덕의 이용과 관련 있는 양아 습속과 아기행사라고 불리는 각종 의례들 그리고 주술적 처방 및 침맞히기의 민간신앙적 습속이 해당된다. 노인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본토와는 다른 제주도 특유의 신생아 및 영아의 육아 습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물애기’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물애기의 수유는 “숨에다 꿀물, 설탕물을 적서 빨도록”(제-18) 하거나, “젓어머니가 대신 물령 주었어”(서-22)라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주위의 도움을 얻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산모의 젓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몇몇 노력이 제시되었는데 “돼지 발 넷이나 돼지 머리를 달여서 산모에게 먹이거나”(서-8), “덕이 있는 할머니를 모셔다가 산모의 유방을 한참 문질러 주거나”(남-22), “심방을 데려다 상을 차리고 빌어 줬어”(남-5) 등이다.

신생아 의복에 있어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아이가 갓 태어나면 남성의 갈증이³⁾로 아기의 몸을 감싸주었는데, 이는 “남자가 입던 갈증으로 몸을 싸야 애가 튼튼하게 자란다”(제-17)는 속신에 의한 것으로, 아기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일종의 주술로 풀이될 수 있다. 아기를 낳아서 사흘이 되면 베로 지은 ‘벗뒤창옷’을 입혔는데, ‘벗뒤적삼’, ‘베창옷’ 등으로도 불리는 이 옷을 삼칠일 정도까지 입혀야만 비로소 독립된 인격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낳은 것이라도 남에게 빌려서 몇 일 동안만이라도 입혀야 했다(제주도교육청, 1996). 이러한 베옷을 입힌 데에는 “삼베옷을 입고 아기가 몸을 뒤척일 때 마나 몸에 묻은 것이 떨어져 나가 피부병을 막는다”(북-11)고 생각하거나, “베옷을 아기 머리 밑에 두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서-6)는 등의 속신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생아의 세욕에는 쑥을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출생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아기를 쑥물로 씻기고 산모의 회음 관리도 했었다고 보고되었다. 쑥을 삶은 물로 산모와 아기가 목욕을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청결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산모의 굵은 피를 제거하고 아기 몸은 소독시킴”(북-9), “단오날 뜯어 말령 그 쑥을 삶아낸 물로 갓난 애기를 씻기면 피부가 고와져야”(서-13)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한방에서는 쑥이 애엽(艾葉)이라 하여 항균작용이 있으며 자궁의 출혈을 지혈시키는 약초로 전해지고 있어(강문정, 1988), 이렇게 전통적으로 신생아를 쑥물로 세욕시키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도 효과적인 과학적 습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생아기를 벗어나 영아기의 수유나 이유, 배변훈련을 시키는데 있어 제주 전통사

3) 무명으로 만든 바지와 저고리에 감물을 들인 제주 특유의 재래 일상복인 갈옷 가운데 바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회는 그리 엄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와는 달리 그러한 육아과정에 노모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엄격한 수유방식을 강조했던 한반도 중심의 전통사회(유안진, 1990)에서와는 달리 제주도 부녀자들의 수유 및 이유태도는 “뭘 신경쓰맨? 그냥 올맨 젓 물렸지”(북-22) 등으로 수유시 특별히 주의하거나 조모로부터 지도를 받았던 사항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수시로 수유가 이루어졌고, 짧게는 생후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 살이 될 때까지도 먹인 것으로 나타나 수유기간에 대해서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이유 방법에는 어머니의 젓꼭지에 무엇인가를 부착시키는 방법과 또는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이유 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지역의 이유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진(1990)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이유 방법으로 조모의 ‘빈 젓 빨기’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해지나, 제주도에서는 “빈 젓을 빨면 거짓말 잘 한다”(북-15)하여 기피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허튼 소리를 잘 하면 ‘빈 젓 빨고 자란 놈’이라고 놀려 조모의 빈 젓 빨기는 이유방법으로는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문재희, 1987). 이렇게 조모가 이유에 참여하지 않은 데에는 제주 사회의 여성 역할과 관련성이 있다. 움직일 힘만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했으므로, 실질적인 대리모였던 한반도 중심의 전통사회 할머니들과는 그 역할이 사뭇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의 배변 훈련 또한 수유 및 이유와 마찬가지로 엄격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 대부분은 배변 훈련시 “특별히 신경 안 썼어”(서-6)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부는

“자주 물어보고 만져서 확인”(서-3)하거나, “형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익히도록 하거나”(북-9), “밑에 옷을 입히지 않거나 엉덩이가 터진 옷을 입히거나”(제-20), “밤에 자주 깨워서 시키는”(제-4) 등의 방법을 보고하였다. 배변 훈련의 시기도 늦고 그 방법도 엄격하지 않은 데는 훈련의 담당자인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의 관용적인 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노동으로 인해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세심한 신경을 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셋째, 제주도 전통적 육아도구인 애기구덕의 용도는 한반도 타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징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우거나 흥구기(놀리기) 위하여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장방형의 바구니로, “대나무, 지푸라기, 쇠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남-37) 사용하였으며, “아기 구덕에 쪽박을 넣고 쪽박 속에 풀재를 놓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덮어”(제-2) 사용하기도 했으며, “여름철에는 시원한 베를 깔기도 하였다”(서-21)고 하였다. 이러한 애기구덕은 그 형태나 조작방법이 단순하여 누구나 아기를 돌볼 수 있게끔 도와준 매개체로서 “아기를 잠 재울 때”(제-16), “아기가 보챌 때”(서-26), “아기를 눕힐 때”(북-40), “어멍(엄마)이 밭이나 물(바다)에 데려갈 때”(북-14) 등 여러 상황에서 다양도로 활용되었다.

여성의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밭농사 위주의 경작환경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물질이 주 생업으로 여겨진 전통 제주사회에서 여성은 노소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경제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또 장자라 할지라도 분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울타리 내에서도 안거리와 밖거리로 나누어 의식주를 독립적으로 하는 제주도의 가족문화(김혜숙, 1999)를 고려해 볼 때, 제주 전통사회에서 조모가 영유아가

손자녀를 돌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애기 돌보기는 일터에 나가지 않는 순위 나이 어린 형제나 아버지, 할아버지, 주변 동네사람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이렇게 누구나 쉽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의 도구로서 또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일터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쓰였던 운반기구로서 애기구덕은 제주 전통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제주도의 전통사회 육아에 있어 애기구덕은 실상 대리모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빈궁한 삶으로 인해 한반도 타지역에서 중요시하였던 삼칠, 백일이나 돌과 같은 아기행사는 거의 생략되었다. 아기행사는 아기의 성장발달의 시점과 전통사회의 사고체계나 신앙체계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아기의 감각발달에 의미를 두어 해석되며(유안진, 1990), 또한 산가의 입장에서는 부정으로부터 아이와 산모를 분리시키고, 산모를 공동체로 재통합시키며, 아이를 가족과 친족공동체, 그리고 지연공동체에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례를 이해되기도 한다(한양명, 1999).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아기행사로 치셋메, 사홀메, 일퀘메라고 하여 생후 첫날, 사홀째 되는 날, 그리고 이레째 되는 날에 삼신할망상을 차렸다. 이중에서도 치셋메의 경우에는 “혼자 아기를 낳아 경황이 없어 상을 차리지 못했져”(서-9),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런 신경 못 썼어”(남-36) 등의 피면접자들의 반응이 많이 나타나 사홀메나 일퀘메에 비해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사홀메의 경우, 분만후 사홀째 되는 날이 산모에게는 회복기⁴⁾이자 신생아는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라 하여 이른 아침에 아기를 씻기

고 머리맡에 삼신할머니를 섬기는 쌀밥과 미역국을 놓아 빌어 주었던 것이다(문재희, 1987; 제주도, 1993). 치셋메, 사홀메, 일퀘메 모두 아기의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삼신(三神)에 대해 치성을 드리는 의례로서 행사의 내용과 의미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과 산북, 동부와 서부 지역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백일이나 돌잔치를 흔히 생략하였는데, 제주도민의 척박한 삶으로 인해 여유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도 백일행사나 돌잔치를 치렀다고 응답한 피면접자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생활이 어려워 백일 차리지 못했주”(북-21), “먹고 살기 바빠 돌이고 백일이고 못 했주게”(서-27), “큰 아이만 돌 때만 곤밥(쌀밥)에 국 끓여 먹었지”(서-6) 등의 반응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돌잔치를 치르는 경우, 그 방법은 다른 지역과 유사하였는데, 백일 때와 같이 삼신상을 차려 빌고, 상 위에는 붓, 책, 돈, 실, 벼루, 가위, 밥, 흙, 자귀 등 ‘돌잡이’를 올려놓아서 아기가 잡는 것에 따라 아기의 장래를 짐쳐보기도 하였다(제주도교육청, 1996). 이러한 제주도의 전통 아기행사와 관련된 습속은 태어나서부터 첫돌까지의 아기의 무사 성장을 기원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생활고로 인해 출산 초기의 상차리기 이외에 특별한 의례는 행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바람이 많고 돌이 많으면서 풍부한 해산물과 산채를 지니고 있는 섬지역 제주도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자연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으로,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여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도민의 정서는 육아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민간신앙적인 습속이 성행하였다. 이를테면, 산후의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제주의 전통사회에서는 태어나

4) 제주 전통사회 산모들의 산육기는 평균 2.5일(문재희, 1997)로 보통 치셋메를 차린 후 일터로 나가는 것이 상례였다고 전해진다.

서 열다섯 살 정도까지는 그 아이의 건강을 상징적 존재로서의 삼승 할망이 관장한다는 관념이 강하였다. 분만 전후와 양육과정에서 다분히 민간 주술적인 요소를 나타냈는데, 민간 주술은 민속의학의 일부분으로 샤머니즘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산육 과정에 관여했던 주술(呪術)적 처방, 즉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재난을 피하려는 습속은 크게 두 가지로서, 순조롭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표 6> 참조)과 아이의 질병을 고치는 데 쓰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제주도, 1993). 또 질병에 대해 주술적 처방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몇몇 예를 제시하였는데, 돌림병(전염병)에 걸렸을 때 “마늘을 갖고 다니거나”(제-19), “심방(무당)을 모셔당 빌었어”(북-31)라고 하거나, 열병에 걸렸을 때는 “방안에 눕혀서 좁쌀물을 먹

이고”(서-30), “초상집 다녀온 사람 못 오게 금줄을 매었다”(북-20)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러한 주술적 습속은 제주에서만 독특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유사한 습속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오선영, 2001; 이경복, 1979; 한양명, 1999).

한편, 민간신앙적 습속의 하나인 침 맞히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주도의 고유한 혹은 특유의 육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의 침 맞히기는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진 습속으로서, “아기가 아프거나”(제-2), “아이가 징징거리고 보챌 때”(남-9), “신경이 날카로워 예민할 때”(북-17) 등 아이의 심신이 불편할 때뿐만 아니라, “한라산 정기 때문에 아이가 난폭해질까봐”(북-13), “콧등에 파란줄이 섰을 때”(북-27) 등의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을의 침바치가 아이에게 침을 놓는

<표 6> 제주도 전통 순산주술의 예

구 분	내 용
출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문, 창문, 고광문, 정지문 등 모든 방문을 열어 놓는다. · 켓문이나 서랍 및 장독이나 물 항아리 뚜껑을 열어 놓는다. · 제주 특유의 재래적 온돌인 굴목을 열어 놓는다. · 빨랫줄도 걷고 옷고름 매듭이나 치마끈을 풀어 놓는다.
산모 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쇠 셋을 삶은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 · 키를 비스듬히 잡고 위쪽으로 물을 부어서 흘러내리도록 하고 떨어지는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 · 피마자 씨를 찢어서 산모의 발바닥에 바른다. · 피마자씨 세 알을 산모에게 먹인다. · 소라 껍질을 산모의 양쪽 무릎 밑에 놓고 앉도록 한다. · 엽전을 구어서 그것을 끓인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 · 살아있는 붉은 수탉을 통째로 배를 갈라서 산모의 배 위에 마주 붙인다. · 꿩발을 산모의 양쪽 무릎 사이 밑에 놓고 앉도록 한다.
남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의 이름을 쓴 종이를 산모의 발바닥에 붙인다. · 남편의 이름과 생일을 종이에 써서 ‘숫강알’(걸어놓은 술의 아래)에서 태운다. · 남편이 물구덕을 진다. · 산아의 부친이 분만하는 장소에 개입해야 옳을 처지인데도 마침 집 밖에 나가서 없을 경우에는 부친의 아래웃을 산모에게 입히거나 혹은 아래웃으로 산모의 허리를 묶든지 허리를 덮어 주어 아순산한다. · 첫째 분만시 남편이 개입하면 다음 애들을 분만할 때에서 개입해야 쉽게 분만한다. 첫째 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애들을 분만할 때도 개입하면 안 된다.

경우가 흔하였다.

일반적 습속인 제주도의 침 맞히기는 기존의 문헌이나 조사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여전히 현대 제주 사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그 가치 또는 과학적 혹은 비과학적 특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제주 전통 육아속의 전승 실태

제주도 전통 육아속의 전승 실태를 신생아관리, 수유 및 이유, 배변훈련 등을 포함하는 양아와 아기행사 그리고 민간신앙적 습속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아

먼저, 신생아 관리에 있어 수유나 의복과 같은 내용은 거의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세욕의 경우에는 부모설문 조사에서도 ‘쭉물을 이용’(83명, 42.8%)하거나 ‘쭉향을 넣고 끓인 물’(15명, 7.7%)을 이용하였다고 나타남으로써 쭉물 세욕법이 오늘날까지도 전승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유기간을 살펴보면, 노인 면접결과에서는 41.0%(55명)이 25개월 정도 수유를 했다고 하였으며, 10살 때까지도 수유를 했다는 반응을 1.7%(1명) 보인 반면에, 현대 부모들의 수유기간으로서는 1년(35명, 20.8%)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로는 3개월, 백일, 14개월 정도로 수유를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통사회의 생활이 궁핍하여 특별히 챙겨 먹일 것이 부족하여 수유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공수유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의 시기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노인 면

접결과에서 대부분의 피면접자들(125명, 93.3%)은 동생을 보는 시기 즉, 세 살 혹은 네 살이 되면 이유를 시작했다고 보고하였으나 부모설문 조사결과에서는 6개월부터(109명, 71.7%)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전통사회보다 이유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수유시 특별히 주의한 사항이 있었다’고 응답한 노인 및 부모의 반응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수유관련 유의사항

내 용	전통(N=22)		현대(N=119)	
	응답수	%	응답수	%
수유진 젖을 깨끗하게 씻음	8	21.1	109	16.7
입으로 불어 줌	2	5.3	10	1.5
처음 나오는 젖은 조금 버림	5	13.2	65	10.0
손으로 수유량을 조절하며 먹임	1	2.6	117	18.0
코가 막히거나 놀리지 않게 먹임	10	26.3	30	4.6
양쪽 젖을 번갈아 가며 먹임	2	5.3	46	7.1
수유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킴	4	10.5	99	15.2
애기가 젖을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음	2	5.3	6	0.9
지방이 많은 음식은 먹지 않음	1	2.6	108	16.6
돼지족발을 먹음	1	2.6	9	1.4
굴을 많이 먹음	1	2.6	46	7.1
매운 음식을 먹지 않음	1	2.6	6	0.9
계	38	100.0	651	100.0

<표 6>에 의하면 노인면접 결과, 제주도 부녀자의 수유태도는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았으며 수유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개 노동에 얽매고 있는 생활 때문으로, 전체 응답자의 16.4%에 해당하는 22명만이 수유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수유에 대해 전통사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피면접자들로부터 얻어진 수유시 주의사항으로는 ‘깨끗하게 젖을 닦아 먹이고’,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조절했으며’, ‘꼭 트림을 시키고’, ‘코가 막히지 않게 하였으며’, ‘젖을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으며, ‘양쪽을 번갈아 가며 먹이고’, ‘매운 음식을 피하고’, ‘돼지족발이나 굴 등을 많이 먹었다’는 등이다. 부모설문 조사결과에서도 모유로 수유할 때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조절하거나’(117명, 18.0%), ‘깨끗하게 씻고’(109명, 16.7%), ‘지방이 많은 음식은 먹지 않는’(108명, 16.6%) 등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 수유시 주의 사항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변훈련의 경우,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전통사회에서는 ‘저절로 가릴 때’까지 혹은 ‘세, 네 살이 지나 동생 볼 때까지’ 등으로 대다수 응답자들(118명, 88.1%)이 비교적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한데 비해, 현대 부모들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2세 사이가 가장 높게(74명, 41.1%) 나타나, 예전에 비해 그 시기가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다. 피면접자의 61.9%(83명)가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배변 훈련을 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수유와 마찬가지로 엄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배변훈련을 했었다’고 응답한 노인 및 부모의 다중응답 분석결과와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노인 면접결과에는 배변 훈련시 특별히 주의했던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8.1%(51명)로, ‘밑에 옷을 입히지 않거나, 엉덩이 부분이 없는 바지를 입힘’(21명, 29.5%), ‘아기를 들어서 소리를 내면서 대소변을 하도록 습관을 들임’(12명, 16.9%), ‘시간마다 소변보기, 대변보기를 말로 타이름’(11명, 15.5%)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대 부모들은 ‘아기를 들어서 소리를 내면서 습관을 들이거나’(85명, 22.2%), ‘플라스틱통을 이용하여 연습을 시키거나’(80명, 20.9%), ‘시간마다 말로 타이르는’(64명, 16.7%) 등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배변훈련 습속은 거의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배변 훈련법

내 용	전통(N=51)		현대(N=90)	
	응답수	%	응답수	%
자주 물어보고 확인함	6	8.5	73	19.1
통(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배변하도록 연습시킴	6	8.5	80	20.9
아기를 들어서 소리를 내면서 대소변을 하도록 습관을 들임	12	16.9	85	22.2
밑에 옷을 입히지 않거나, 엉덩이 부분이 없는 바지를 입힘	21	29.5	31	8.1
조금 크면 자주 앉아서 누도록 함	7	9.9	29	7.6
시간마다 소변보기, 대변보기를 말로 타이름	11	15.5	64	16.7
밤에 자주 깨워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시킴	3	4.2	17	4.4
뭍쓰는 종이를 깔아서 배변 훈련시킴	5	7.0	4	1.0
계	71	100.0	383	100.0

한편, 애기구덕은 본 연구의 피면접자 모두가 ‘직접 만들거나’(95명, 70.9%) ‘물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39명, 19.1%) 활용을 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제주도의 전통적이면서 매우 필수적인 육아용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도 직접 만들지는 않았으나, 84명(50%)의 응답자가 쇠구덕을 구입하여 사용했다고 응답함으로써 구덕을 이용하는 습속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면접결과, 구덕의 활용은 ‘아기를 잠 재울 때’, ‘아기가 보챌 때’, ‘아기를 눕힐 때’, ‘엄마 일터로 데려갈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모설문에서는 애기구덕 활용으로는 ‘잠재울 때’(120명,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사회에서의 운반기구로서의 용도로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는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지는 않지만, 조작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아기를 돌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기구덕의 사용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육아습속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기행사

치셋메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다수(102명, 76.1%) 노인들은 ‘혼자 아기를 낳아 경황이 없거나’, ‘먹을 것이 부족해서’ 차리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현대 부모들의 경우에도 소수의 응답자(8명, 4.5%)만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할 망상을 차린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치셋메는 과거나 현대 모두 그리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흘메의 경우, 노인 면접에서는 응답자의 77.6%(104명)이 삼신 할망상을 차렸다고 반응을 보여 치셋메보다 일상적인 습속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7%(13명)만이 삼신 할망상을 차렸다고 응답하였다. 일뤼메의 경우, 모든 노인 응답자(100%, 134명)가 ‘칠일 밥을 해서 먹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6.5%(11명)만이 ‘칠일상을 차렸다’ 하여, 치셋메와 함께 사흘메, 일뤼메가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아기행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백일 행사가 그리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접 결과 전체 9%(12명)의 피면접자가 백일 행사를 치렀고, 현대 부모들은 56.0%(94명)이 백일잔치를 치렀다고 보고하였다. 둘의 경우, 노인 면접결과 50.7%(68명)가 둘상을 차렸다고 하였으며,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83.3%(140명)의 응답자들이 둘잔치나, 둘상 차리기 등의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셋메, 사흘메, 일뤼메 등의 아기행사는 비교적 그 전승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비해 백일과 둘행사는 전통적으로는 아기에겐 지나치게 정성을 들이면 아기가 단명하거나 자주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아기행사의 생략을 위안으로 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와서는 대표적인 아기행사로 행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민간신앙적 습속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재난을 피하려는 주술적 처방 중 아이의 질병과 관련하여 행해진 몇 가지 예에 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의 질병에 대해 주술적 처방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노인들(35명, 26.1%)의 처방에 대해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166명, 98.8%)이 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대 의학의 도움을 얻기 힘들었던 전통사회와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전승되고 있는 처방들도 있었는데, 그 예로 눈 다래끼가 났을 때의 처방에 대한 다중 응답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눈다래끼가 났을 때의 주술적 처방

내 용	전통(N=39)		현대(N=46)	
	응답수	%	응답수	%
둘 세 개 위에 깨진 그릇을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차도록 한다	7	5.0	9	9.2
엄지손톱에 바늘로 십자가를 그려서 그 눈 위를 쓸어댄다	5	3.5	14	14.3
겉보리로 침 놓듯이 콧코 찌른다	27	19.1	7	7.1
개똥 물을 보릿짚에 적셔서 다래끼에 바른다	6	4.3	1	1.0
속눈썹을 뽑아 돌맹이 위에 얹어 놓는다	9	6.4	14	14.3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	30	21.3	40	40.8
참기름이나 오줌, 꿀을 바른다	15	10.6	10	10.2
속내의 밭 한쪽 끝을 묶는다	3	2.1	0	0.0
새비나무 가시를 뽑아 새비나무 가운데 거꾸로 다시 꼽는다	3	2.1	0	0.0
동네 침 할머니에게 찾아가 빈다	7	5.0	0	0.0
심할 경우 침으로 찌른다	4	2.8	0	0.0
화장실 돌담 하나를 바꿔 놓는다	10	7.1	2	2.0
돼지 몰래 돼지우리의 담을 살짝 뒤집어 놓는다	3	2.1	1	1.0
밥을 검은 형겅에 싸서 눈다래끼 난 위에 쭈쭈 누른다	4	2.8	0	0.0
다래끼가 난 눈 반대방향 옷에 실로 7번 감아 놓아둔다	8	5.7	0	0.0
계	141	100.0	98	100.0

<표 9>에 의하면 노인 면접결과에서는 눈 다래끼가 낫을 때의 처방으로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30명, 21.3%), '겉보리로 침놓듯이 콧코끼 찌른다'(27명, 19.1%), '참기름이나 오줌, 꿀을 바른다'(15명, 10.6%), '화장실 돌담 하나를 바꾸어 놓는다'(10명, 7.1%) 등이 나타났다. 전통적인 주술적 처방 중 일부는 부모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40명, 40.8%), '속눈썹을 뽑아 돌맹이 위에 얹어 놓는다'(14명, 14.3%), '엄지손톱에 바늘로 십자가를 그려서 눈 위를 쓸어댄다'(14명, 14.3%), '참기름이나 오줌, 꿀을 바른다'(10명, 10.2%) 등은 현대에도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전통적인 민간신앙적 습속으로 알려져 있는 침 맞히기의 경우, 56.7%(76명)의 노인들이 아이에게 침을 맞혀 키웠다고 하였으며, 현대 부모들 중에서도 46.4%(78명)의 응답자들이 침을 맞히면서 아이를 키웠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침 맞히기 습속이 현대에도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을 맞히는 시기는 노인들의 경우, 생후 2개월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여 두 살부터 열 살 정도까지 계속해서 맞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현대 부모들은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만 침을 맞혔다는 반

<표 10> 침을 맞힌 이유

내 용	전통(N=76)		현대(N=78)	
	응답수	%	응답수	%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울거나 보챌 때	61	42.7	75	35.7
놀랐을 때(경기할 때)	39	27.2	69	32.9
감기, 설사할 때	9	6.3	3	1.4
체하거나 열이 날 때	16	11.2	19	9.0
콧등에 파란 줄이 섰을 때	11	7.7	6	2.9
신경이 날카로울 때, 잘 먹지 않을 때	7	4.9	38	18.1
계	143	100.0	210	100.0

응이 가장 많았다. 침을 맞히면서 아이를 키웠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그 이유를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침을 맞히는 이유는 크게 치료적 목적과 사전 예방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이가 심신이 불편할 때의 치료적 목적으로 침을 맞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면접결과, 치료적 목적에서 아이가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울거나 보챌 때'(61명, 42.7%), '놀랐을 때나 경기할 때'(39명, 27.2%), '체하거나 열이 날 때'(16명, 11.2%) 등의 이유로 침을 맞힌 것으로 나타났고, 사전 예방적 목적으로는 '콧등에 파란 줄이 섰을 때'(11명, 7.7%)라고 응답하면서 양 눈 사이의 콧등에 핏줄이 드러나는 것을 아플 징조로 예감하여 침을 맞혔다고 보고하였다. 침을 맞히는 이러한 이유들은 현대 부모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이가 놀래거나(69명, 32.9%), 잠을 잘 못 자고 보챌 때(75명, 35.67%) 침을 맞힌 것으로 나타났다.

침을 맞혀 키웠다고 응답한 노인들 중 그 효과에 대해서는 65명(85.5%)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테면, 침을 맞힌 후 '덜 보챌다거나', '열이 내리고', '잠을 잘 자게 되고', '잘 울지 않았다' 등이었다. '효과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침을 맞혔다'고 응답한 피면접자들(11명, 14.5%)도 있어 효과성 뿐만 아니라 일종의 관습적으로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아이가 침을 맞은 후 잘 잔다던가, 편안해 한다던가, 열이 내리는 등의 효과를 보고한 응답자는 전체 44.9%(35명)로, 나머지 응답자들은 관례처럼 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아이에게 침을 맞히는 행위는 현대에도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제주도 전통적 습속임을 알 수 있다.

Ⅵ. 논의 및 결론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 기록, 보존될 가치가 있으며 그러한 역사의 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선인들의 아이를 낳고 길러왔던 모습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시간과 공간, 주체라는 요인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노인 면접 및 현대 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특징과 그 전승 실태를 시간과 공간, 주체라는 세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의 전통 산육속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저항과 생존투쟁의 역사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온 자립 지향 문화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독자적 지위를 유지해 오다가 고려 태조 때부터 중앙정부의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근대 이전까지 관원들의 수탈에 핍박을 받아왔고, 근대 이후에도 외부에 의해 군사, 정치, 산업적 전략지로 변모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이러한 역사는 제주인들로 하여금 강인 불굴의 정신으로써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응양식을 형성케 하였다(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 2000; 신행철, 1998; 이창기, 1999). 제주 전통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은 제주인의 산육 과정에서도 나타나, 임산부라 하여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를 도모하지 않았으며, 분만과정에서도 자력으로 분만하고 산모는 짧은 산육기를 지낸 후 다시 생업에 임하는 등 제주 여성들의 강인함과 자립지향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태교 실천이나 분만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습속은 현대 의학의 발달과 사회적,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현대에는 전승되어

오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제주 전통 산육속의 일부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 전통 산육속은 결핍과 풍요의 이중적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효율성 지향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화산지형으로 하천은 거의 건천이며 토양은 화산회토로 척박했던 한편, 해산자원과 식물종이 풍부하였으며 지리학적으로는 자생적인 생활문화에 본토와의 정치적 교류를 통해서 북방문화를 그리고 해류를 통해 남방문화의 유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주인들은 풍부한 각종 해산물과 식물종을 이용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독립의식, 근검절약의 정신을 강화시켜, 각박한 풍토적 조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김항원, 1997; 송성대, 2001). 제주도의 자연 환경적 특성은 출산 전후 임산부들을 위한 음식, 행위 등과 육아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육아용품 및 먹거리 등에 영향을 주었다. 즉 빈곤한 삶으로 인해 백일이나 돌과 같은 아기행사는 생략하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메밀과 쑥을 이용하여 산후식과 신생아 및 산모의 세욕을 실천했던 것은 척박한 환경과 풍요로운 자원에 대한 지혜로운 활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분만 후 산후식으로 메밀을 먹거나 신생아 세욕에 쑥을 이용하는 것은 현대 부모들에게도 전승되고 있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제주의 전통적인 산육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의 전통 산육속은 제주도민들의 노동을 통한 현실 극복과 민간신앙을 통한 현실에의 초월적 의지를 내포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사회는 열악한 환경적 조건을 극복해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노동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사회였다. 또한 노동을 통한 현실세계에 대한 극복의 의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심리로서 민간신앙적 관습에 의존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였다(김향원, 1998; 김혜숙, 1998, 1999; 현용준, 1975). 이러한 사회의 특성은 육아를 담당했던 부녀자들의 출산과 육아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태줄 처리방식, 출산 직후의 아기행사와 이유, 배변훈련 등에 나타난 소극성, 애기구덕의 활용, 질병에 대한 주술적 처방, 침 맞히기 등의 습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유 의존의 시기를 벗어나 첫돌이 지나게 되면,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모가 대리모로서 어머니를 대신하면서 이 시기 유아들의 이유와 배변훈련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놀이교사이자 때로는 이유와 배변훈련으로 인한 부적응, 갈등의 심리치료의원으로서 육아경험을 되살려 손자녀들을 돌봐주었다(유안진, 1990). 그러나, 제주도의 조모들은 발농사와 물질(어업)이 가능한 노동인력으로서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조모 역할과는 달랐으며, 중요한 노동인력이었던 어머니 또한 이유나 배변훈련에 적극 참여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제주도민의 이러한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은 아이의 기본생활습관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의식으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어머니의 일터로 아이를 데려가는 운반도구로 그 역할을 하면서 누구라도 쉽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육아용품인 애기구덕에서도 제주도민의 노동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서구문화가 유

입되어 오면서 이유나 배변훈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인식이나 습속이 그대로 전해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애기구덕은 현대 제주 부모들의 일상적인 육아용품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노동에 기반을 둔 산육속은 제주의 고유한 문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바다에 던지거나 불에 태우거나 땅 속에 묻는 등의 태줄 처리방식과 치셋메, 사홀메, 일뤼메 등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삼신에게 치성 드리는 아기행사와 질병에 대한 각종 주술적 처방 그리고 침을 맞추어 아이를 키우는 습속 등은 제주도민들의 척박한 현실에의 초월적 심리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벽사(辟邪)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러한 민간신앙적 습속은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오늘날에도 태줄 처리방식과 일부 주술적 처방 그리고 침 맞히기는 전승되고 있어, 제주도 전통 산육문화의 민간신앙 지향적인 특성을 읽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들과 관련하여 후속적 전통 산육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산육속의 범위를 만 2세 정도 영아기까지의 육아 습속으로 한정지어 다루었는데 만 4, 5세 정도까지의 유아기 육아 습속까지로 확대하여 그 특성 및 전승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제주도 전통 산육속을 종합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태교실천, 출산과정, 양아, 아기행사, 민간신앙적 습속의 5개 영역의 주요 습속을 연구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이 외 자녀관이나 기자속(祈子俗), 주양육자, 놀이, 심방(巫)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 조사를 통해서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전통 산육속의 현대사회로의 전승 실태를 양적 분석하였는데, 심층면접을 통해 질적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 또한 현대 부모들의 산육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전통은 역사성과 지리성 그리고 주체라는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

로서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형성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전통 산육속에 대한 지역별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지역간 및 문화권간 비교를 통해 산육문화의 보다 심층적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득희(1983). 부정에 대한 인식 및 의존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 252-274.
- 강문정(1988). 일부 제주지역의 전통적 산후 건강관리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영(1994). 조선 전기 아동교재의 내용분석 : 동몽선습과 격몽요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부자(1976). 제주도의 산후속. *한국민속학*, 제9집, 93-111.
- 김승찬(1993). 거제도지역의 금기생활. *한국문화연구*, 제6호, 464-481.
- 김종숙(1989). 조선시대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원(1997). 제주인의 의식. *제주리뷰*, 제3호, 66-77.
- _____(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 :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향원 · 김진영 · 고성준 · 강근형(2000). *전환기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혜숙(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신행철 편, 제주사회론2, pp. 403-424). 서울 : 한울아카데미.
- _____(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 : 제주대학교출판부.
- 류점숙(1987).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훈육법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 141-152.
- 문재희(1987). 제주도의 육아속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 도서출판 각.
- 신양재(1994).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91-228.
- _____(1995).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연령 기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 183-196.
- 신행철(1998). *제주사회론 2*.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오미경(1991). 전통사회의 태교사상과 산육속에 대한 연구 : 조선시대 문헌 중심으로.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영(2001). 한국 전통 산속의 교육적 의의.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 :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여송(1987). 전남지방의 산후속. *호남대학 논문집*, 제8집, 33-51.
- 이경복(1979). 조선시대 산속 연구. *한국민속학*, 제11집, 47-64.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대구 : 영남대학교출판부.
-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1)*. 제주 : 아라출판.

-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 문화*. 제주 : 제주도 교육청.
- 조혜정(1982). *제주 해녀사회 연구*. 서울 : 심설당.
- 하수연(1999). 한국 전통 태교의 금기에 관한 연구. 동 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양명(1999).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 제16호, 109-127.
- 현용준(1975). 제주도의 기층문화. *한국문화인류학*, 제7호, 57-73.
- 홍순례(1992). 호남 지방 산속의 유형과 의미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9). 기사신앙 연구 : 금기와 전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Patrick, J. J.(1992). *Heritage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 Defining and Avoiding the Pitfalls*. Washington :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 Williams, R.(1961). *The Long Revolution*. London : Chatto & Windus.